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41호 / 2026년 09월 22일 / FAX(031)680-6865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63일째 새벽, 밤샘 협상 끝에 마무리

- 유족협상은 마무리, 안전문제는 이제부터 시작

어제 9/22일(월) 오후 7시 30분 부터 시작된 6차 유족협상이 오늘 새벽녘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7/22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3일만이였다.

그동안 유족과 대책위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와대, 국회를 오가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것이였다.

유족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저녁 6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만도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고 김승모 노동 시민 사회장” 을 진행하며, 장례를 대신할 예정이다. 고 김승모 동지의 명복을 빌며, 지난 63일 동안 지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만도지부 또한 금속전환 이후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의 죽음 앞에 하청과 원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부 지회 간부들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며 주말까지 투쟁을 이어가야 했지만, 이번 중대재해 투쟁이 26년 임단협 투쟁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

■ 중대재해 투쟁 63일, 남은 것은 안전한 현장 만들기

지난 63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그동안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유가족과 대책위, 지역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의원과 법률전문가, 언론인들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노력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분명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 이였다.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었고, 다시는 우리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현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가야 할 과제가 남았다.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확인했다.

- 평택공장 법 위반 124건, 원하청 138건 적발 - 86건 사법처리

지난 8/18일 ~ 9/18일까지 평택공장에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포함 총 138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6건은 사법처리, 과태료는 약 2억 8천만원이다. 현재 원주와 익산도 노동부 본청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와 근로감독을 진행 중에 있다.

■ 끼임 사고 위반만 26건

더 심각한 것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가운데 33%인 26건이 “끼임” 관련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인터록을 무효화한 채 설비를 가동하고, 구동부 덮개, 방호울, 비상정지 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도 22번 중, 17번 미개최

평택지회 산보위 허위 개최 및 서류 작성 문제도 확인되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2번의 산보위를 개최했어야 했지만, 그 중 17번을 개최하지 않았다. 산보위 미개최 과태료만 8,500만원이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후 평택공장에 안전보건진단과 개선 계획 수립 명령도 내려질 예정이다. 외부 안전보건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어떻게 사법처리하는지 지켜 봐야 한다. 매번 사고가 나고 재발방지를 수립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반복된 악습은 이제 끝내야 한다.

- 합의서 -

HL만도 주식회사와 유족은 고 김승모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회사의 대표이사과 안전 및 노사 총괄대표가 직접, 유족에게 사과한다. 아울러 그룹 회장도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장례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문하여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
2. 회사는 전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선정 시 복수의 안전전문기관 후보군을 확보하고, 이중 만도지부가 동의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회사는 고 김승모의 유족이 제기한 불법파견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